



여백을 통해 완성한 따사로운 공간

미색의 시멘트 벽면이 아무것도 그려 넣지 않은 캔버스처럼 보이는 다이닝룸. 어찌 보면 창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드레아 하르벡은 이러한 여백이 집 안에 따스한 정서를 선사한다고 말한다. 가녀린 마른 가지가 놓인 우드 테이블, 벤치 위에 놓인 몽글몽글한 양털은 시멘트 벽면을 배경과 대비를 이루며 고유의 따스함이 돋보이고, 붉은색 의자는 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

개방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내추럴 터치

계단과 단차를 이용해 공간과 공간을 완벽히 분리한 집. 덕분에 2층에 오르면 문을 생략한 침실을 만나게 된다. 집 주인인 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드레아 하르벡은 개방적이지만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건축적 구조를 살려 문을 생략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도했고, 계단 또한 난간 부분은 면으로 막되 계단과 계단 사이는 오픈시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개방감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가구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침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반구형 행잉 안락 의자는 등나무로 짠 디자인으로 공중에 떠 있는 가운데 창 너머 빛이 새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유로운 안식처에 당도한 듯 개방감을 느끼게 해준다.



자연과 하나되는 휴식

침실과 이어지는 욕실은 자연 풍경을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담아낸 창문이 매력 포인트. 비탈진 산세가 펼쳐지는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칫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데, 건축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창을 수직으로 내어 급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 풍경을 살리기 위해 욕조 옆에 통나무 사이드 테이블을 놓았다. 마치 자연 속에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듯한 특별한 욕실은 이렇게 세심한 배려에서 탄생한 것.







수평선을 강조해 복잡함을 간결함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남편과 패션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드레아 하르벡의 지상 낙원은 바로 그들의 재산과 같은 책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는 거실이다. 거실의 가장 큰 벽면을 오롯이 책장 선반으로 만든 과감함도 멋지지만 책의 크기와 색상에 따라 분류해 장식적인 효과도 돋보이게 정리한 점은 감탄을 자아낸다. 가로로 긴 벽면의 형태를 살려 선반을 수평선으로 디자인한 점, 이 수평적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책을 꽂은 후 남은 여백의 간격을 계산해 책장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 않게 한 점은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다.



리빙센스

Living
sense

JANUARY 2019
www.smlounge.co.kr/living

30th
ANNIVERSARY
(주)서울문화사

배우 류승룡의 자연을 닮은 집

같은 평수 다른 인테리어

FESTIVAL FOOD

산업디자이너 SWNA 이석우

〈미스터 션샤인〉, 내 그곳을 다녀왔소

EDGE OF TRENCH

ISSUE 화재로부터 안전한 집



직선의 반듯함과 흑백의 대비

거실과 주방이 바닥의 높이 차이를 두고 분리되긴 했지만 공간 전체가 심플하고 간결한 여백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 법. 주방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의 스틸로 직사각형의 아일랜드를 만들고 스틸 냉장고와 오븐은 벽면 표면과 같은 레벨이 되도록 설치했다. 또한 아일랜드 양쪽 끝에는 같은 색상과 소재로 된 가느다란 직선의 기둥을 세워 주방 자체의 경계를 또렷하게 표시, 그 자체로 주방이 정돈되어 보이는 효과를 선사한다.